

# “내집 대신 빚만 떠안나” 자산주택조합원들 불안

### 조합측 조합원 신용 담보로 대출한 160억 11월 상환해야 사기분양 사건으로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상환할 방법 막막 아파트 건설 차질 불가피... 조합원들 신용불량자 전락 우려

400명이 넘는 광주시 동구 자산주택조합 조합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산동에 오랫동안 살아온 조합원 자격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고사하고 분양은커녕 대출받은 은행 빚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경찰도 기존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 외에 조합측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배임 혐의로 수사하면서 아파트 사업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자산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해 10월 조합원 총회를 거쳐 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320여억원(토지 담보부 대출금 160여억원·브릿지 대출 160여억

원) 중 조합원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은 브릿지대출 160여억원을 제때 상환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릿지 대출’은 단기차입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임시방편 자금대출’로, 대출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평균 8% 가량)가 높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중도금 등으로 토지매입 대입 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데, 부족한 것을 고려해 조합원 개인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다. 해당 아파트 부지의 토지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과정에서 브릿지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자산주택조합측도 토지 매입, 조합 및 업무대행사 운영 등에 사용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브릿지 대출’ 형식으로 160억원을 제 2금융권에서 빌려 사용해왔다는 게 조합원들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11월 20일이지만 은행 중도금 대출이 중단된 만큼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수천만원씩을 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 측은 애초 은행에서 대출받은 조합원들의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산주택조합의 주거레은행측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출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사실상 서민들이 대부분인 조합원들이 금융권 대출 대신, 직접 수천만원의 돈을 마련해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여기

에 종잣돈으로 대출금을 지급했다라도, 사업 자체에 대한 불투명성이 겹치지 않은 시기에 분양대금을 추가로 납입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우려와 관련, 조합측이 해소할 만한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한 형편이다. 당장, 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지연에 따라 조합원마다 1억 5000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조합원 반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업무대행사의 사기 분양 사건이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될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 만큼 대출금 상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현재 자산

##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 공무원 소유 소나무 고가 매입 항소심도 “뇌물 맞다”

공사 발주 총괄 공무원이 소유한 소나무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탐진강 제방 정비사업’과 관련,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장흥군청 공무원 B씨 소유의 소나무 102주를 1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군청 제방 정비사업 발주 총괄 업무를 담당했으며 공사를 담당할 도목건설회사에 A씨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B씨는 원래 사적인 친분이 있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소나무를 사들였다며 ‘뇌물 공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뇌물’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애초 탐진강 제방 정비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뒤 소나무를 판매할 기회를 제공한 점, 관련법(건설사업기본법)상 A씨 건설사가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점, 소나무를 대량 구매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처분에 어려움을 겪던 B씨의 것을 사들인 점 등을 토대로 대가를 거래라고 봤다. B씨가 다른 곳에 1주당 5만원씩 판매했던 소나무 판매 가격을 10만원으로 책정, A씨에게 판매한 점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불 들어올리다 떨어뜨려 생후 한달 아기 숨지게한 친모 금고 1년 형 선고

한 달 아기를 이불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 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하순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다가 아기가 누워 있던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같은 해 11월 2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1월 6일 사망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인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13년 4월 첫째 아이를 살해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양육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딸을 잃고 자책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인지능력이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코로나19에 미뤄진 시험, 이제라도 볼 수 있어 다행”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광주 8462명 응시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

“취업하기 힘들고 공무원 시험도 미뤄져 걱정했는데, 늦게나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남중을 찾은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의 얼굴엔 긴장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날 전남중을 비롯, 광주 시내 27개 시험장(654개 시험실)에서 치러진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세무직렬 필기시험’ 응시자들은 8462명. 전체 지원자 1만 2121명 중 69.8%가 코로나19 위기에도 응시장을 찾았다. 교문을 들어서는 수험생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1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손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환관으로 들어섰다. 시험 관리본부는 환관에 열화상감지기를 설치, 수험생들의 발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교문부터 수험생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과 차량의 진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애초 예정됐던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일(3월 28일)보다 106일이나 미뤄졌고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한 탓에 응시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에 안도하는 수험생들이 더 많았다.



2020년 국가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전남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교시장을 확인하고 있다.

교사장 입구에서 만난 수험생 김모(28)씨는 “시험이 한 번 밀리면서 이래저래 신경이 쓰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다들 힘든 시기에 늦게나마 시험이 결정돼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정모(30)씨도 “최근 광주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또 다시 연기

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며 “또 동구 고시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에 집에서만 공부하고 바깥 활동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함께 모여 공부하는 그룹 스터디와 수험정보 공유도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공부하는 데 어려움 탓인지 응시율은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광주 응시율(81.3%)보다 낮았다. 수험생 최모(38)씨는 “다닌던 회사를 두고 시험에 응시해 남들보다 조금만 마음이 크지만, 수험생이라고 코로나 시국에 예외는 아니기에 신경 쓰지 않고 시험 준비에 임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 갓 낳은 아이 길가에 버린 2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자신이 갓 낳은 아이를 버린 2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구례경찰은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28)씨를 입건했다. 유기된 아이는 행인이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9시 40분께 구례시외버스 터미널 건너편 편도 2차선 도로중 2차로에 주차된 차량사이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하던 중 상가 2층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산후 회복이 끝나는 대로 자세한 영아 유기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 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http://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거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